

케냐의 대선 결과 및 전망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주요내용

- 10월 26일에 치러진 케냐의 대선 재투표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98%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었으나 선거의 공정성 및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번 재투표는 지난 8월에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하여 라일라 오딩가 대선후보가 불복선언을 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됨.
-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냐의 경제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1. 이슈 현황

▶ 10월 26일에 치러진 케냐의 대선 재투표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98%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었으나 선거의 공정성 및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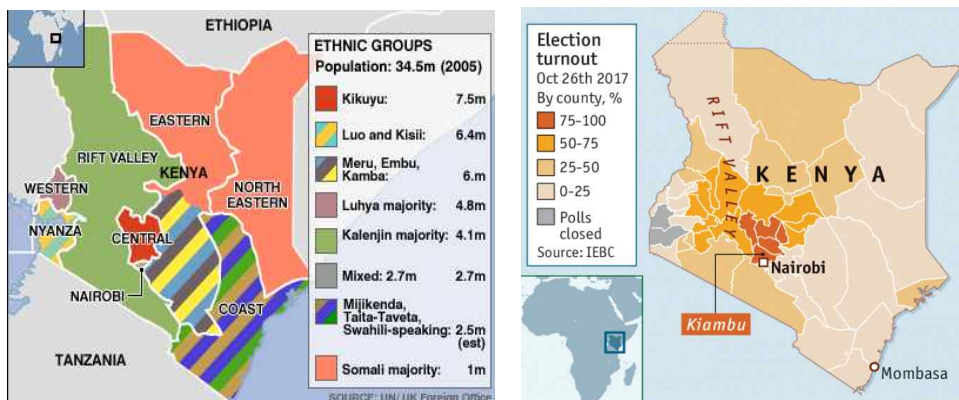
- 야권연합의 주요 대선후보인 라일라 오딩가가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독려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로즐린 아콤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돌연 사퇴 후 미국으로 도피함.
- 이에 8월 대선에서 79%에 달했던 투표율이 10월 재선거에서는 38%로 떨어져 선거의 당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부족: Kikuyu)과 윌리엄 루토 부통령(부족: Kalenjin)의 출신 부족이 거주

1) 기존 대통령 선거는 8월 8일에 치러졌으며 공식적인 집계결과에 따르면 우후루 케냐타 후보가 54%, 라일라 오딩가 후보가 45%의 표를 받았음.

하는 주요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총 290개의 선거구 가운데 113개의 선거구에서는 투표율이 20% 미만이었고 라일라 오딩가의 출신 부족(부족: Luo)이 다수인 4개의 주에서는 폭력 사태가 악화되어 투표가 치러지지 않음.²⁾

- 재선거 후에도 재선거의 준비 절차와 관련하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가 여러 건 접수되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판결 기한은 11월 20일까지로 오딩가의 불출마 선언 후에도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명시한 행위, 4개의 주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후보자들의 재선거 참여 통보 시기 등이 주요 사유로 명시됨.

그림 1. 케냐의 부족별 주요 거주 지역 및 지역별 투표율



자료: BBC "Kenya stokes tribalism debate" <http://news.bbc.co.uk/2/hi/africa/7168551.stm>, Economist "Uhuru Kenyatta's hollow victory" <https://www.economist.com/news/middle-east-and-africa/21730894-presidents-landslide-re-election-marred-boycott-uhuru-kenyattas-hollow?zid=309&ah=80dcf288b8561b012f603b9fd9577f0e>

2. 원인과 분석

- ⇒ 이번 재투표는 지난 8월에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하여 라일라 오딩가 대선후보가 불복선언을 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됨.

- 라일라 오딩가는 선거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하며 8월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함.
- 라일라 오딩가는 1차 집계표(34A)의 결과에 의하면 본인이 최종 당선자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 전송하지 않았으며 임의적으로 작성된 2차 집계표(34B)를 근거로 우후루 케냐타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함.³⁾

2) 케냐타 대통령이 속한 Kikuyu 부족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는 44개의 부족 중 가장 큰 부족으로 전체 인구의 22% 정도이며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케냐의 대법원은 △ 각 투표소의 1차 집계표가 모두 전송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공시 △ 대선 결과 발표 후에도 1차 집계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최종 발표의 합법성 훼손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 해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요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응 △ 보호무늬 및 일련번호가 없는 집계표 발견 등을 근거로 변칙과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분으로 기존 대선 결과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림.

3. 전망과 시사점

▶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냐의 경제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재선거가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및 선거 절차 개선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오딩가 후보 측은 6개월간 양당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케냐타 당선인 측은 강한 반발을 표시하여 대법원이 케냐타의 당선을 확정하더라도 교착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선거 과정이 지연되고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항만 출하량, 소비 등이 감소하여 손실액이 1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재무부가 발표하였지만 선거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반면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선거 때와 같이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서 케냐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임.⁴⁾

EMERiCs

3) 케냐에서는 투표가 완료되면 각 투표소별로 후보자별 총 득표수, 무효표 수,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 수 등을 표기한 1차 집계표(34A)를 작성해 스캔하여 전송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선거구별로 총 득표수, 무효표 등을 명시한 2차 집계표(34B)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함. 이를 기반으로 3차 집계표(34C)가 작성되며 이를 통해 최종 득표율이 발표됨. 모든 집계표의 사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2007년 선거 분쟁으로 인해 유혈사태가 발생하면서 최대 1,500명이 사망했으며 경제성장률은 2007년 6.9%에서 2008년 0.2%로 급감함(World Bank).

참고문헌

- Daily Nation, Standard Media, Bloomberg 등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